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준비된 도시’ 나주, 공공기관 2차 이전 최적지

16개 기관 성공 정착... 전국 혁신도시 대표 성공모델
즉시 이전 가능... 업무·주거·교육·보육·문화까지 갖춰
에너지·농생명·ICT 집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장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히 수도권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이 연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2차 이전에서는 ‘어디로 이전하느냐’만큼 ‘이전 이후 얼마나 빠르게 지역에 정착하고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16개 공공기관이 이미 자리를 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부지와 업무공간 뿐 아니라 에너지·농생명·ICT·문화예술 등 산업 기반,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체계, 주거·교육·보육·문화 등 정주 여건까지 갖추면서 ‘준비된 혁신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전국 최다 16개 기관 정착... ‘성공한 혁신도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미 수많은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점이다. 현재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을 이끄는 핵심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생명 분야 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ICT 분야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예술 분야 기관까지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이 집적돼 있다.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16개 공공기관이 이곳에 정착한 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기관별 기능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농생명, ICT, 문화예술 등 서로 다른 분야가 연계되면서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기술 실증, 기업 지원 등 다양한 협업이 가능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빛가람혁신도시는 이미 이전의 시행착오를 넘어 하나의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대표적인 강점이다.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전KDN과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이 집적되면서 에너지 생산·송배전·전력거래·디지털 전력서비스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다. 2차 이전 기관 입장에서 기존 기관들과의 공동사업과 연구개발, 정책 협력, 기업 지원 등에 곧바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산업 기반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혁신도시 중심...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추진

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과 이전기관의 기능을 연계해 집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공기관을 산업과 연구, 정주 기반이 갖춰진 혁신도시에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역시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혁신도시 활성화,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기능과 산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나주에는 기회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산업적 통합 효과까지 더해질 경우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미래산업 이끄는 산·학·연 협력체계

빛가람혁신도시는 단순한 공공기관 집적지를 넘어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기반도 갖추고 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에너지밸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집적하면서 정책과 연구개발, 기술 실증, 인재 양성, 기업 지원이 한 지역에서 연계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AI 혁신인재 양성사업과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차세대 전력망 구축, 에너지 ICT 산업 육성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겨냥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연계한 연구개발특구 조성 등도 추진되면서 나주가 기존 에너지산업을 넘어 미래 국가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연구·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2차 이전 기관의 입장에서든 이러한 기반은 중요한 경쟁력이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이러한 기반이 형성돼 있어 이전기관이 지역사회와 산업계에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즉시 입주’부터 주거·교육·보육까지

공공기관 이전의 최종적인 성패는 기관의 이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전기관 직원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조성된 신도시인 만큼 주거와 교육, 보육, 의료, 문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2년 연속 ‘혁신도시 상생대상’을 수상하며 빛가람혁신도시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체육 등 생활 인프라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다. 시는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이자 지원, 취득세 감면, 가족 취업 지원, 365시간 보육실 운영 등 다양한 정착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분야 역시 경쟁력으로 꼽힌다.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확대를 비롯해 전남과학교, 전남외국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부터 고교, 대학, 영재교육까지 이어지는 교육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 에너지영재교육원과 에너지영재학교 설립 등이 추진되면서 에너지 분야 특화 인재 양성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문화·체육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와 빛가람꿈자람센터, 반다비체육센터를 비롯해 빛가람호수공원과 영산강정원 등 주민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도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2차 이전을 추진하는 기관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로서 업무공간과 클러스터 단지, 교통망 등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기관이 이전할 경우 별도의 도시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검증된 혁신도시’ 투자 효과 극대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기관을 단순히 지역별로 나눠 배치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결고리를 확대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이미 16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있다는 점에서 ‘검증된 혁신도시’라는 강점을 갖는다.

전국 최다 공공기관 집적이라는 경험에 더해 에너지·농생명·ICT·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 기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체계, 에너지 AI와 K-그리드 등 미래산업 기반, 그리고 주거·교육·보육·문



① 나주빛가람호수공원 음악분수
② 나주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③ 나주빛가람꿈자람센터 놀이체험실

화 등 정주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새로운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정책이라면, 이미 기반시설과 산업생태계가 구축된 나주를 활용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새로운 행정·경제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지역산업 미래 결정

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단순한 기관 유치 경쟁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이미 16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이전기관과 기존 기관의 기능을 연결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한다면 빛가람혁신도시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병대 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축을 다시 세우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며 “혁신도시특별법이 지향하는 혁신도시 중심의 균형발전과 정부의 공공기관 집적화 정책은 이미 검증된 혁신생태계 위에서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16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전국 혁신도시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의 기반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체계, 에너지 AI와 K-그리드, 인공태양 연구시설로 이어지는 미래산업 경쟁력, 교육·주거·보육 등을 아우르는 정주 여건까지 갖춘 나주는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된 도시”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빛가람혁신도시의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고 광주와 전남의 산업·경제적 연계를 강화한다면 나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적극 대응하고 유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